

광주 남구, '키다리 아저씨' 한자리에 모인다



남구민 나눔의 날 행사 어린이집 기부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23일 100여명 초청, 감사패 등 전달 후원 덕분에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지역 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키다리 아저씨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남구는 18일 “지역사회 후원자와 사회공헌 참여 기업 및 단체, 착한 가정 및 착한 가게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오는 23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키다리 아저씨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키다리 아저씨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선 후원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민관이 함께 만들어 온 따뜻한 복지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복

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에 이바지한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며, 나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 상영과 함께 기부자간 교류의 시간도 마련된다.

또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 확산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내일의 희망을 다짐하는 기념 촬영도 이어진다. 남구는 그동안 개인 후원자와 지역 기업 및 기관·단체 등의 지속적인 후원 참여 덕분에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주택 리모델링을 비롯해 저소득 아동의 소원 성취 프로젝트인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생계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돕는 긴급복지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

레이다. 또 명절을 앞두고 진행하는 나눔 사업과 김장 나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 사업도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많은 주민이 희망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키다리 아저씨들과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동구 충장동, 돌봄 이웃에 사랑 담은 열무김치 나눔

정성 담은 열무김치 50세대 전달 돌봄 이웃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광주 동구(청장 임택) 충장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금숙)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돌봄 이웃을 위한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장동 마을사랑채에서 진행됐으며, 회원들이 정성껏 담긴 여름철 별미 열무김치를 돌봄 이웃 5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건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충장동새마을부녀회는 매년 계절별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다

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열무김치를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생활 불편 사항도 청취했다.

김치를 전달받은 주민들은 정성이 담긴 나눔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일부 어르신들은 “여름철 입맛이 없을 때 큰 도움이 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회원들은 짧은 만남이지만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

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충장동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나눔 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충장동새마을부녀회 역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회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열무김치 나눔 행사는 이웃 간 정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지면서 나눔의 의미가 더욱 키웠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해진 따뜻한 마음이 무더운 여름 속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금숙 회장은 “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준비한 열무김치인 만큼, 무더운 여름 아삭하고 시원한 열무김치를 맛있게 드시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영 충장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열무김치를 손수 만들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충장동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여름 보양식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지역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광주 동구청 전경 사진

/광주 동구청 제공

